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Bully/Victim Problems in Korean Junior/Middle Schools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숙
박사과정 이춘아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Lee, Sook

Doctoral Course : Lee, Choon-A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문헌 연구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 adolescent's aggressiveness and victimization, 2) to find the relation among maternal behaviors, adolescent's self-esteem, aggressiveness and victimization, 3)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these variables on adolescent's aggressiveness. The subjects were 478 boys and girls attending at junior/middle school in Kwang-ju city.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standard deviation, Perason's correlation, F-tes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due to the sex of adolescents and school achievement.
2.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behaviors, adolescents' self-esteem,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3. The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aggression were maternal authoritarian

* 이 연구는 1996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 지원 과제임.

behavior, school achievement, the sex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victimization.

1. 문제의 제기

최근에 들어 청소년의 폭력 및 범죄행동에 관한 조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심각한 우려와 대책 마련에 관한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또래 집단에 의한 폭력 행위는 청소년기의 특유한 발달적 특성으로 보아 넘기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7)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재학생인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4.6%가 남을 구타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36.7% 정도로 나타났다. 더우기 한달에 한번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하는 남학생이 13.3%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폭력이 행해지는 장소도 학교와 그 주변에서 점차 변화가나 주택가 등을 가리지않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이러한 청소년의 폭력 행태는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실상이 밝혀지기를 꺼리고 있고, 이에따라 보고된 사례보다 실제 사례는 훨씬 많으리라고 우려된다.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학교내 폭력 행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반복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공격 대상의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등에서 더욱 주의를 끌고 있다. Perry, Kusel과 Perry(1988)에 의하면, 공격적인 아동은 모든 또래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또래에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한다. 이런 견해에 비추어 보면, 공격희생자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폭력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의 주체가 되는 공격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공격희생 청소년에 대해서도 원인 및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부모나 교사, 전문

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겠다.

또래에 대해 공격적인 청소년은 공격적 특성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공격적 습관은 성인기의 공격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Eron, 1987; Olweus, 1979).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에서 자제력이 약하고 폭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향이 많다(Olweus, 1979)고 한다. 반면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공격희생 청소년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자신이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학교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다(Olweus, 1993)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공격성의 원인 및 그 양상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고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도 청소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행동, 학업 성적 등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으나, 공격성의 대상이 되는 공격희생의 경우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공격적인 관계속에 포함되는 대상은 공격자와 피공격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격희생자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연구는 공격자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따라 폭력의 대상이 되는 공격희생 청소년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함은 물론, 이를 통한 적절한 대안 마련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겠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 중 우울증이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상당수 보고되어 있으나 공격희생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공격성 뿐만 아니라 공격희생에 관련된 관련 변인들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Olweus(1993)는 공격당한 경험이 이후의 공

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공격성과 공격희생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더우기 국내에서는 보고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서 공격성과 공격희생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 특성간의 관계를 밝히고,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며, 이러한 변인들과 공격희생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도방안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성,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성적)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공격희생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사회인구학적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공격희생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문헌연구

1. 공격성과 공격희생

여러 학자들은 공격성에 대한 기본적인이고 가능한 원인을 내적 동기와 본능, 혹은 환경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나 개인적 학습과 문화에 의한 조절 등으로 본다(Baenninger, 1991). 이런 맥락에서 공격성 이론은 크게 본능이론, 욕구좌절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이론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공격성이라는 개념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 뿐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혹은 화를 내게 하는 정서상태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공격성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Dollard, Doob, Miller, Mower와 Sears, 1939)'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의도성이 가정되어 있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만 추론할 수 있으므로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Buss(1961)는 공격성을 대인간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행위자의 동기를 추론하는 일을 피하고 관찰가능한 결과만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Bandura(1973)는 의도성을 일정한 상황에서 대인간 상호작용이 공격적이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준거로 사용하였으며 공격성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판단이나 문화적 기준에 따라 행동자의 지위, 역할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격성의 개념정의에 이어서 Buss(1961)는 공격성의 유형을 적대적 공격과 수단적 공격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적대적 공격이란 상해를 입히는 행동 자체가 목적일때를 칭했고, 비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행동을 할 때는 수단적 공격성이라고 칭했다. 이 수단적 공격에는 일정한 대상이 없는 간접적 공격과, 신체적으로 타인과 싸우거나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능동적 공격성, 그리고 거절 혹은 반대등의 수동적 공격성이 포함된다.

한편, Olweus(1978)는 공격자의 유형을 상습적 공격자(bully), 불안정한 공격자(anxious bully), 희생-공격자(bully/victim)로 분류했다. 상습적 공격자(bully)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으로서 희생당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를 강자로 지각한다(Batch와 Knoff, 1994). Olweus(1978)는 공격희생을 한사람 혹은 집단으로부터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격 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직접적 공격과 사회적으로 고립 시키거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하는 간접적 공격을 받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공격희생자의 유형을 수동적 공격희생자(passive victim)와 도발적 공격희생자(provocative victim)로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이유없이 타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공격희생을 이유없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관련 변인에 따른 공격성과 공격희생

공격성에서의 성차에 관한 문제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대체로 여자보다 남자가 공격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Olweus, 1980; Maccoby와 Jacklin, 1980). 공격성에서의 성차는 2세에서 2.5세 사이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학생들도 남자가 여자보다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고 한다(Hyde, 1984). Perry와 Rasmussen(1986)은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에 대해 실제적인 보상을 더 많이 예상하고 희생자의 고통, 또래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 자기평가를 적게 예상한다고 하였다. McGrew(1972)는 남아와 남아, 남아와 여아 같이 남자 아동이 들어가는 짝이 여자 아동들만의 짝에서보다 공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에서 더욱 뚜렷해진다(Olweus, 1996). 이양순(1988)의 연구에 따르면 성에 따라 부모가 다른 양육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노치영, 박성연(1992)의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적 행동 관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더 공격적이라고 하였다. Olweus(1991)의 연구를 살펴보면 5-7학년 학생의 60% 이상이 남학생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Boulton과 Underwood(1992)의 연구에서도 공격희생아동은 65%가 남아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공격희생의 유형에서도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3-4배 이상 신체적 공격을 당한 반면 여학생은 비웃음과 놀림을 당했다(Eron과 Huesman, 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공격성이나 공격희생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Olweus(1984)의 연구에서는 공격집단, 공격희생집단, 통제집단과 잘 적응된 집단을 비교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공격성과 공격희생의 문제를 학교에서의 사회적 열등감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Whitney와 Smith(1993)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습적 공격행동 발생빈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이 있다고 보고했고, 정미자

(1995)의 연구에서도 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공격적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치영(1988)은 중,상류층인 경우보다 하류층일 때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공격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학업성적과 공격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Coie와 Dodge(1988)의 초등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공격적이고 고립적인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reen, Forehand, Beck과 Vosk(1980)의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낮은 학업성적은 위축문제,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orehand, Long, Brody와 Fauber(1986)의 연구에서도 낮은 학업성적은 높은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었다. 학업성적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능과 공격성을 연구한 Huesmann, Eron과 Yarmel(1987)은 870명의 대상을 8세부터 30세까지 추적한 결과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낮은 지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다른 성인에 비해 지능검사의 결과가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자들은 공격성이란 지능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상황에서의 갈등이나 학업성취의 결여, 또는 그로 인한 자기 존중감의 상실과 같은 다른 요인이 매개하여 서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Olweus(1984)는 공격적인 학생은 학업성취면에서 평균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체제에서의 실패나 좌절의 결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격희생학생의 학업성취를 살펴보면, Batsche와 Knoff(1994)는 공격을 당하는 환경에서 불안과 공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희생 학생은 부진한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고 보고했고, 상습적으로 공격당한 학생의 90%가 진급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Hoover, Oliver와 Hazler, 1992). Olweus(1978)도 공격희생학생은 또래보다 성적이 낮다고 보고했고, Perry, Kusel과 Perry(1988)도 공격희생 수준과 지능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공격성 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들고 있다. 어

머니의 양육행동 중 아동의 공격성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수는 어머니의 거부와 허용성으로 나타나 있다(Olweus, 1984; Batsche와 Knoff, 1994). Olweus(1980)의 연구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공격성을 예언하는 변인이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허용도였으며, 어머니의 냉정하고 거부적인 태도, 아동의 활동적이고 충동적인 기질,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훈육 방법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격적인 아동의 부모들은 문제해결기술이 빈약하고, 때리면 싸우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자신의 높은 공격적 행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이고, 희생아동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전혀 없다(Olweus, 1991)고 보기도 한다. 또한 신체적 체벌과 함께 부모가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때 아동의 공격성이 크게 나타났고, 신체적 체벌을 통한 훈육방식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1980; Perry와 Bussey, 1984). 양육행동과 공격희생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Floyd와 Levin, 1987) 공격희생자는 공격적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자녀이거나 과보호를 받은 경우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lweus(1994) 역시 공격희생아동의 특성으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불안감이 높고 유아기때는 민감했으며, 부모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해서 과잉보호된 아동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거부가 주요변수로 작용했으나 공격희생 아동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변수라고 하였다(Olweus, 1993).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Olweus(1978, 1984)는 공격적인 청소년은 지배적이고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강하다고 보고하면서, 상습적 공격자는 강하고 독단적이며 쉽게 자극되고 공격을 즐기며 평균정도의 인기와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불안정한 공격자는 학교생활이 미숙하고 불안정하며 또래수용도가 낮은 반면에 희생-공격자는 강하고 독단적이며 또래수용도가 낮고, 또래에게 공격적이면서 자기 자신이 희생자라고 불평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김영환(1965)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고등학생은 불안도가 높고 자아개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김성기(1982)는 자신을 긍정

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의식을 가지며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의식을 가지지 못하며 부조화와 방어성과 왜곡성을 가지게 되므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전형적인 공격희생자의 특성(Olweus, 1996; Perry, Williard와 Perry, 1990)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을때 울거나 위축되고, 불안정하며 소심하고 민감한 경향이 있다. 또한 상황이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폭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공격성향이 낮다고 하였다. Olweus(1978)에 따르면, 수동적 공격희생자는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으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도발적 공격희생자는 화를 쉽게 내고 언제나 긴장되어 있으며 잘 싸운다는 것이다. 즉, 수동적 공격희생자는 전형적인 공격희생자의 특성을 갖고 있고 도발적 공격희생자는 공격성과 불안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시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 5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부재한 경우나 무응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서 478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남자 청소년은 231명(48.3%), 여자 청소년은 247명(51.7%)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50.6%), 대졸(27.0%), 대학원졸업이상(11.3%) 순이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62.8%), 중졸(17.2%), 대졸(13.6%)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28.7%), 자영업(24.9%), 피고용기능공(23.2%), 관리직(13.2%), 전문직(5.6%)의 순이었다.

2. 검사도구

- 1) 양육행동척도 :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이 숙(1990)이 제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중에서 2개의 하위영역(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을 선택하였고, 문항수 및 내용을 다소 첨가 보완하여 총 14문항으로 된 5점 Likert척도를 제작, 사용하였다. 권위주의적 통제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80이었고, 과보호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2) 공격성과 공격희생척도 : Perry 등(1988)이 제작한 Peer Nomination Inventory를 참고로 우리문화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공격성 척도 5문항과 공격희생 척도 5문항과 Filler item 5문항으로 된 5점 Likert식 검사도구(총15문항)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의 제작과정을 보면,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 또는 문항은 적절한가를 아동학전공 대학원생 6명과 3인의 아동학 교수가 검토한 후에 95명의 중2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항들이 실제상황과 어느정도 일치하는가를 조사하여 문항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공격희생 척도는 .78이고 공격성 척도는 .74였다.

3) 자아존중감검사 : 송인섭(1987)의 '중학생용 성격진단검사'의 일부인 자아특성 검사 중에서 일반자아검사를 사용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긍정적인 문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부정인 문항은 반대의 순으로 점수를 배정하였다. 따라서 총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며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용 질문지내에 아동의 성,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등을 묻는 문항과 가족에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30%), 중(40%), 하(30%)의 세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부모의 교육수준 및 부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5) 학업성적 : 학업성적은 1학기 성적을 기초로 교사가 상(30%), 중(40%), 하(30%)의 세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조사(1997.6.9-12)와 남녀 중학교 1,2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본조사(1997.7.14-18)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실시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였으며, 검사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이 있는 경우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부재한 경우는 제외시켜 47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의 α 계수, Pearson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일원변량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공격성과 공격희생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공격성과 공격희생

독립변인(명)		공격성			공격희생		
		M	F	D	M	F	D
성별	남(231)	10.6	47.5***		10.7	43.3***	
	여(247)	8.6			8.6		
학업성적	상(143)	8.5	43.3***		8.6	4.00*	B
	중(192)	9.6			9.7		BA
	하(143)	11.1			10.2		A
SES	상(143)	9.4	0.14		9.1	0.60	
	중(192)	9.6			9.6		
	하(143)	9.3			9.9		

*〈.05 **〈.01 ***〈.001

분석 결과 공격성과 공격희생 모두에서 청소년의 성과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즉, 공격성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F=47.5, P<.001$),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F=7.4, P<.01$). 공격희생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F=43.3, P<.001$),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F=3.2, P<.05$).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Olweus, 1991; Boulton & Underwood, 1992)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높은 동시에, 공격희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공격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학업 지향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가 학생을 평가할 때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낮은 학업성적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욕구좌절을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공격희생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Batsche와 Knoff(1994)가 공격희생 학생은 공격을 당하는 환경에서 불안과 공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진한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결과를 지지해준다. 공격성과 공격희생 모두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의의있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공격성이나 공격희생의 문제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

위에서 올 수 있는 불이익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는 Olweus(1984)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공격희생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공격희생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의 r계수를 산출하였다. 그결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간에는 .38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격희생의 경험이 공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Olweus(1993)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것은 또한 공격성과 공격희생을 별도의 행동 특성으로 구분해서 분석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된 행동 특성으로 파악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공격희생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각각 .28, 과보호와는 .31, .32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공격성에는 권위주의적 통제 또는 거부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Maccoby, 1980; Perry와

<표 2> 관련변인과 청소년의 공격성 및 공격희생간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1. 성별	1.00							
2. SES	-.05	1.00						
3. 학업성적	-.10*	.19***	1.00					
4. 권위주의적 통제	.13**	-.07	-.20***	1.00				
5. 과보호	-.04	.00	-.22***	.52***	1.00			
6. 자아존중감	-.29***	.13**	.35***	-.41***	-.27***	1.00		
7. 공격희생	-.29***	-.04	-.14**	.28***	.32***	-.17***	1.00	
8. 공격성	-.30***	.00	-.17***	.28***	.31***	-.15**	.38***	1.00

*(<.05 **(<.01 ***(<.001

Bussey, 1984) 반면에 공격희생에는 과보호가 영향력이 있다(Floyd & Levin, 1987)고 보는 견해와는 차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어머니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과보호를 하는 양육행동도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공격희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공격성과 공격희생 모두와 부적인 상관(-.17, -.1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부적인 상관은 김영환(1965), 김성기(198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공격적 욕구의 표출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격희생과 자아존중감간의 부적 상관은 반복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됨으로써 좌절감을 맛보고 자신감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희생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중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한결과(D=2.04), 잔차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변인간 상관이 .7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격희생, 권위주의적 통제, 성별, 학업성적, 과보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희생을 높게 지각할수록, 권위주의적 통제나 과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남자일 때 청소년의 공격성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변인들의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은 26%였다.

공격희생은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공격희생을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

<표 3>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PR ²	STB(β)	F
공격성 F=28.4*** R ² =.26	공격희생	.15	.15	.17	81.7***
	권위주의적 통제	.05	.20	.10	33.2***
	성별	.04	.24	-1.93	23.1***
	학업성적	.01	.25	-.26	8.85**
	과보호	.01	.26	.07	5.29*
	자아존중감	.00	.27	-.02	2.48
	SES	.00	.27	.29	0.90

* <.05 ** <.01 *** <.001
* 성별은 가변수화하여 처리하였음(남자 : 0, 여자: 1)

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공격성을 공격희생과 분리된 성격특성이나 욕구로서 파악하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시사해주며, 공격적 청소년과 공격희생 청소년으로의 단순한 분류로는 청소년의 공격성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폭력과 관련된 공격희생의 경험이 좌절감을 가져와서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고, 공격적 모델에의 반복된 노출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래에 의한 공격희생의 경험은 물론, 가정에서의 폭력, 교사로 부터의 폭력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따라 공격적 행동의 유해한 결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사회복지제도나 부모교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해주며 청소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권위적으로 대할 때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어머니가 과보호하는 것도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무턱대고 감싸고 보호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일 때, 공

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외에, 학업성적 역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을 특히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과 학업성적은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공격성과 공격희생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격희생, 권위주의적 통제, 성별, 학업성적, 과보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희생을 높게 지각할수록, 권위주의적 통제나 과보호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남자일 때 청소년의 공격성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변인들의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은 26%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은 별도의 특성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개인에게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호관련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공격성과 공격희생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격자와 공격희생자의 유형을 추출해냄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지도와 개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공격희생의 경험을 줄임으로써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는 청소년

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모두 유의있는 상관이 있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4.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은 심리적 적응의 한 측면인 자아존중감에 모두 부정적인 상관이 있다.

【참 고 문 헌】

김성기(1982). 성격특성과 공격성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환(1969). 공격성과 불안 및 자아강도와의 관계. 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송인섭(1987).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양서원.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7). 비행청소년 상담프로그램 11 개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tsche, G. M. & Knoff, H. M.(1994). Bullies and their victims: Understanding a pervasive problem in the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23(2), 165-174.
 Boulton, J.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Buss, A.H.(1961). *The psychological aggression*, New York: John Wiley.
 Coie, J. D. & Dodge, K. A.(1988). Multipul source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 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Dollard, Doob, Miller, Mower & Sears(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Eron, L. D.(1987). The developmental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 Floyd, N. N., & Levin, E.(1987). An expert finds that bullies and their victims are linked in a strange, unconscious courtship. *People* (April 13), 143-146.
- Forehand, R., Long, N., Brody, G. H. & Fauber, R. (1986). Home predictors of young adolescents'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7, 1528-1533.
- Green, K.D., Forehand, R., Beck, S. J. & Vosk, B. (1980).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1, 1149-1156.
- Hoover, J. H., Olevier, R., & Hazler, R. J.(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Huesmann, L. R., Eron, L. D., & Yarmel, P. W.(1987).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32-240.
- Hyde, J. S.(1984). How larg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22-736.
- Maccoby, E. E. & Jacklin, C. N.(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cGrew, W. C.(1972). *An ethological study of children's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Miller, G. E.(1994). School violence miniseries: impression and implica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23(2), 257-261.
- Olweus, D.(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6), 852-875.
- _____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 _____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John Wiley & Sons Ltd, 57-76.
- _____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411-447.
- _____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H. Rubin & J.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3-18.
- _____ (1994). *Bullying at school: Long-term outcomes for the victims and an effective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L.R. Huesmann (Eds), *Aggressive behavior: Current perspectives*. New York: Plenum Press, 97-131.
- _____ (1996).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Blackwell Publishers Inc.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Prentice-Hall.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Perry, D. G. & Rasmussen, A.(1986).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Perry, D. G., Williard, J.C. & Perry, L.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225.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mith, P.K. & Thompson, D.(1991). Dealing with bullyvictim problems in the U.K. In P.K. Smith & D. Thompson Practical approaches to bullying, David Fulton Publishers 1-12.
- Whitney, I. & Smith, P. K.(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 3-25.